

“해남, 친환경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최적지”

전국 최대 용량 태양광발전용량에 최대 규모 ESS 전남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요청 방침 주목

국내 최대 발전 용량(98MW)과 세계 최대규모의 ESS 에너지저장장치(306MW)를 갖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자리한 해남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도 선정되면서 관련 기업 입주,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남도, (주)한양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에 따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분산형 전원을 ‘해남 솔라시도 친환경 산업벨트’에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10개소를 유치해 융복합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목표로

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반 시설로, RE100 달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그린 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산업과 인구가 집적돼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관련 기업들까지 해남에 입주시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주목을 받았

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벨트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탄소 중립 등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 2월 여수 방문에서 전남 핵심공약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 ‘전남 8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이미 집중되고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전남에 탄소 중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염해농지 430만평을 활용하여 전환

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며 해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의 약 8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를 해남으로 분산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을 추진중이며 이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과도 연관되는 사업인만큼 인수를 설득할 논리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 평화 퍼포먼스 펼치는 유치원생들 29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그려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개발·상용화 박차

목포시-한국전기연구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공동연구 협약

전남도가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앞당기고 미래 조선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친환경선박의 핵심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목포시청에서 목포시, 한국전기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친환경선박 전기추진기술 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장,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이 상호 협력해 친환경선박 핵심기술인 전기추진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4개 기관은 조선해양 친환경 전기추진기술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해 활용하고, 조선-해운-기자재 관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공동 개발해 상용화하는데 함께 나설 방침이다.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전기 전문 연구기관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선박해양공학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이들 기관과 함께 친환경선박 전기추진기술 개발에 본격 돌입한 전남도는 친환경선박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선도적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목포시는 친환경선박이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앞당기고 미래 조선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함께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목포 삼진산단에서 승객 120명, 차량 20대를 실을 수 있는 420t 규모 국내 최초 순수 전기추진차도선을 진수했다. 목포 남항에서 친환경선박 연구개발 중심지 역할을 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연구거점 ‘친환경 연구추진 본부’도 오는 5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 및 산업화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연안여객선의 55%, 어선의 41% 등 연안선박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탄탄한 조선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 본격 추진

광역형 5곳 등 13곳 선정 성평등·돌봄 등 6개 분야

광주시는 “여성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친화마을을 13개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분야는 성평등·돌봄·경제·안전·그린뉴딜·대표성 등 6개로, 지속가능한 마을 모델 창출을 위한 2년 연속사업인 광역형 5개소와 친화마을 도입단계인 특화단계 8개소가 선정됐다. 마을별로 광역형은 2000만원 이내, 특화단계는 1000만원 이내,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광역형 모델사업은 동구 지산2동 새마을부녀회의 마을 어르신 중심 돌봄봉사 제공과 골목 장인 체험장 운영, 서구 화삼골 따:앗의 공예활동을 통한 여성 일자리 사업과 틈새돌봄, 남구 주민회의의 마을탐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함께하는 돌봄, 매곡동 주민자치회의의 마을자원인 매실을 매개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개발과 여성 전문인력 양성, 신안동 자원봉사캠프프지기의 친환경 상품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이다. 특화단계 친화마을사업으로는 ‘서구 온마을’의 부모와 함께하는 틈새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농어

촌 체험활동 등을 통한 마을 돌봄체계 구축, 남구 심시일반나눔마을학교의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육아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나눔돌봄 실현 등을 추진한다. 또 ‘임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마을 놀이터를 연계한 ‘요일 놀이터’ 및 코로나19 힘든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산구 첨단살롱여문순은 성평등 주제에 맞는 공예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올해 첫 친화마을에 선정된 ‘충장동 주민자치회’는 충장동 여성상인의 이야기를 발굴해 시대별 다양한 여성상을 기록하고, 계림2동 새마을부녀회는 야간순찰과 정화활동, 달빛거리 만들기 등을 통한 안전한 동네 만들기, 서구 꿈꾸는터전작은도서관은 방과후 마을돌봄교실 운영과 양육자 코칭을 통한 돌봄지원 등에 나선다. ‘광산구 마을소리소’는 아파트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재활용품을 활용한 원예식물 만들기 등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과 실천 과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여성재단에선 이들 마을의 성장 및 발전을 돕기 위해 1대 1 컨설팅 및 마을간 네트워킹,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본촌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변신

37억 들여 편의시설 확충

광주 산업단지 중 가장 오래된 본촌 산단이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본촌 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근 선정됐다. 광주시는 문화센터 건립비 48억원 중 27억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14억원 중 10억원을 국비로 충당하게 됐다. 문화센터는 산단 관리사무소 부지에 문화·전시 시설, 휴게실, 헬스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춰 근로자들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산단 도로망을 중심으로

벽화 거리, 방범용 폐쇄회로(CC) TV, 미세먼지 알라미, 일자리 무인안내기(키오스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본촌 산단은 1983년 북구 양산-일곡동 일원 93만 7000㎡에 조성돼 196개 업체가 입주했다. 고용 인원 2000여명, 연간 생산액 1조원에 달하는 광주 경제의 한 축이지만 기반 시설이 낡아가면서 활력이 떨어졌다. 배현숙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편의 시설과 함께 산단 주변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2호선, 일곡민간공원 등이 들어서면 입지 여건이 개선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급 인력과 젊은이가 몰려드는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TALK TALK

「서구톡톡」에서 서구와 소통해요!

<https://www.seogu.gwangju.kr/seogutalktalk>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